

퇴직금 전액회사
구산장학회 설립
조동호 보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회향 당연”

전재산으로 장학회를 세운 어머니의 보시행을 본받아 제년퇴직금 전액을 불교장학금으로 내놓은 자랑스런 불자가 있다.

대물이어 장학회를 세운 이는 서울 법륜사 신도 조동호(63.법명 연화성)보살.

조보살은 최근 41년간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하면서 받은 퇴직금 2억2천여만원 전액으로 구산장학회를 세웠다. 조보살이 세운 구산장학회는 어머니 무상각보살이 세운 불일장학회에 이어

지 말라던 어머니의 가르침에 송구스럽다”며 겸손해 한다.

조보살의 어머니 무상각보살은 양어머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양어머니로 모셨던 출출산이다. 어머니는 젊어서 혼자되어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한푼도 개인을 위해 쓰지 않았다. 남의집 허드렛일부터 밥장사, 여관업을 하면서 빈손으로 송광사 대소불사는 물론 불일장학회, 보조사상연구회, 불교문화재단을 세웠다. 지난 여름, 광장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서 보시행

“40년 교단생활 무주상 보시”

송광사의 두번째 장학회이어서 더욱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요즘들어 사회가 극단의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시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보시행을 강조했고 저도 얼마 되지 않지만 사회에 다시 환원했으면 합니다.”

“자식들도 모두 대학교육까지 마쳤고 육군대령으로 예견된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이 충분하다”는 조보살은 “보시했다는 상(像)마저도 내세우

으로 일관했던 어머니가 돌아갔다. 49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조보살은 문득 어머니의 삶이 생각났던 것이다.

“어머니는 항상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어도 주었다 말하지 않는 자연의 보시를 강조했습니다. 교직생활을 하다보니 큰돈이 없었으나 퇴직하면서 목돈이 생겨 보람있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법륜사 현호스님을 찾았고 스님의 권유로 40여년전 불자의 길로



이글었던 구산스님의 뜻을 기려 구산장학회를 설립키로 했다. 구산장학회는 내년 신학기부터 대학원생을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조보살은 구산장학회는 액수가 적어 많은 학생들에게

마창시민불교문학상 수상자 결정

봉사상-승욱스님
문학상-이월수씨

마창시민불교연합회(회장 지안스님)가 불교와 향토문화창달에 공로가 많은 이들에게 수여하는 ‘마창시민불교문학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마창불교연은 지난 23일 제5회 시민불교문학상수상자로 봉사상-승욱스님(고성 청련암 주지), 예술상-권영호교수(경남대 미술교육과), 문학상-이월수(경남신문 문화부장), 언론상-김병달 PD(KBS창원총

국)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봉사상으로 선정된 승욱스님은 24년전부터 17명의 집없는 아이들을 키우며 자비행을 펼쳐왔다. 권영호교수는 금년 미술의해를 맞아 마산미술 50년전을 기획하고 돌싱비엔날레를 주관한 공로가 인정되어 예술상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문학상을 받게될 이월수부장은 60년 시(바위)로 문단에 등단

인천사암련, 강화·김포·검단 통합

강화 김포 검단지역이 인천광역시에 통합되면서 이지역 사찰도 조계종 인천사암련협회(회장 김성일)산하로 통합됐다.

인천사암련협회는 지난 19일 인천시민회관에서 강화 김포 검단통합 기념법회 및 불우이웃돕기행사를 펼쳤다.

방자하스님을 비롯 지역기관장 신도등 7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선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불교의 결속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강화 마니산 지명 개명반대, 복지관운영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2부 불우이웃돕기행사에서 김태곤씨등 불자가수가 출연해 1천여만원의 성공을 모았다. 인천사암련은 이 기금을 인천지역 보호관찰대상자와 철거민노인등에게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사암련은 강화 김

포 검단지역 통합으로 50개사 창로 늘어났다.

전불련 교육수련회
내달 2-3일 선학원서

전국불교운동연합(삼익의장 지선)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선학원에서 ‘전불련 제2차 교육수련회’를 개최한다.

“현시기 불교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강사·양친 지민회 우장산 자기활동에 대한 성공사례 발표와 경남 진주의 6·27지방선거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백남석법사의 ‘불교수행과 운동적’을 주제로 하는 강연에 이어 제주불교정보청년회의 현시기 불교운동의 사상, 실행과 혁신을 위하여란 발표도 갖는다.

마곡·수덕박물관 정부 10억씩 지원

요구금액 절반수준 내년 예산 편성...증액 절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와 제7교구본사 수덕사 성보박물관 건립에 각각 10억원씩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현재의 종무소 자리에 성보박물관을 세울 계획인 마곡사(주지 철웅)는 총 건립금이 40억중 10억은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곡사 한 관계자는 “최근 충남도의 내년 예산안 편성에 성보박물관 지원금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 금액은 국고와 충남도비가 합쳐진 것이라고 밝혔다.

마곡사는 지하 1백50평 지상 1백50평 규모의 박물관을 설립, 사찰소유 문화재들을 일괄 전시 보존할 계획이다.

이미 성보박물관 건립을 진행중에 있는 수덕사(주지 범장)도 “국비 5억 준비와 도비 5억을 합친 10억의 지원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찰의 성보박물관

범어사 주지에 성오스님 선출

산중총회 3번 휴회 진통끝 만장일치

한 이후 지역문화발전에 힘써왔으며 언론상 수상자 김병달 PD는 93년 ‘가야불교’와 95년 ‘다시보는 경남-해인사’ 권을 제작해 바른 불교 알리는 일에 앞장섰다.

한편 마창시민불교문학상 시상식은 12월1일 창원 컨벤션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2백만원과 상패, 기념품이 증정된다.

포교사 303명 탄생
조계종, 첫 고시 40% 합격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이 지난달 29일 전국 6개지역에서 실시한 첫 포교사 실시에서 303명의 포교사가 탄생했다.

이번 고시에는 총 7백40명이 지원, 40% 합격율을 나타냈다. 최고 득표자는 이성형(부산 해원불교대)·윤정배씨(부산 동국불교대)로 필기와 면접에서 만점을 받았다. (관련인터뷰 4면)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는 지난 20일 휴회정사에서 제적스님 1백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중총회를 개최, 성오스님(운수사 주지)을 차기 주지스님으로 추천했다.

이날 산중총회는 11인위원회로 구성, 성오스님을 만장일치로 후임주지로 추천한 뒤 참석자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산중총회는 벽파, 대정, 홍교, 지형스님 등 13명으로 구성된 협의위원들이 부주지 이하 7직스님들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문화회합과 원활한 종무집행을 위해 각 계과대표, 문중종진, 종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종무위원과 비상임 종무위원으로 구성된 종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위원회 보강을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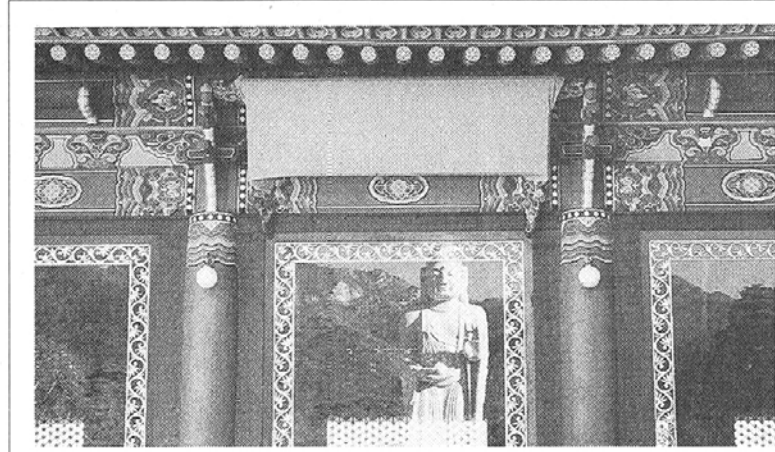
한편 새 주지로 추대된 성오스님은 지난 67년 해인사에

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이래 86년 범어사 교무국장을 역임하고 지금까지 운수사 주지로 정진해 왔다. (부산=백병근 기자)

“강의법 다양화 필요”
조계종 연수강사 간담회

지난 1년간 열린 조계종 중진 및 각 교구 본말사 주지 연수에서 연수회 목표실점이 분명하고 좀더 불교계 단련 주재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져야 함이 지적됐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 17일 녹수청산에서 95년도 연수회 강사 간담회를 갖고 △교재내용의 충실 △세미나 등의 다양화 △강의법 도입 △교육후 평가체계 마련 △시정차기실 갖추어진 연수장 마련 연수회의 내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통일대불이 노태우 前대통령 친필현판 ‘통일기원대전’이 지난 18일 회색천으로 가려졌다. 5계를 범한 자의 현판을 청정도량에 걸 수 없다는 불자들의 항의를 동화사측이 받아들여 철거에 앞서 천으로 가린 것. 지난 17일 동화사는 대종회의를 열고 일단 천으로 현판을 가린 다음 승가본연의 입장에서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되 원천철거 또는 현판 아랫부분에 새겨진 각인 석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화사=이윤호 기자)

장애인 세상보기 행사

연화복지회(회장 해성스님)는 지난 13일 장애인 단체인 함께갈음의 요청을 받아 ‘장애인 세상보기’ 행사의 일환으로 강화도 전등사 야외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증장애인 8명과 택시기사불자모임인 법륜

회(회장 김장희) 회원 20여명이 함께 참여해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해남·강진 성지순례
부산불교청년연합회

부산 불교청년연합회(회장 윤대일)는 지난 18, 19일 양일간 전남 해남과 강진일대에서 성지순례 및 역사기행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지회를 포함 14개지회 1백여 청년불자가 동참한 이번 순례는 미황사, 백련사, 단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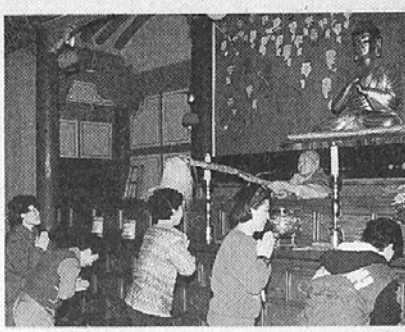
당 등을 찾아 역사를 통해 신심을 불구었다.

3개일마다 열리는 부불청의 다음 순례법회는 충남 수덕사와 한운스님, 생가, 독립기념관이다.

부산 불교청년연합회(회장 윤대일)는 지난 18, 19일 양일간 전남 해남과 강진일대에서 성지순례 및 역사기행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지회를 포함 14개지회 1백여 청년불자가 동참한 이번 순례는 미황사, 백련사, 단산초

대구지사 053)426-2779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승찬스님은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주고 이어주는 것이 오게리며 계율을 지켜가지고 설법했다.

“5계지킴은 부처님인연 맺는 일”

조계총림방장 승찬스님 친견 1백여불자 동참

“내 마음바탕에 그림정이 없는 것을 계라고 합니다. 어지러움이 없는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음이 없는 것을 혜라고 합니다. 그릇됨이 없으면 저절로 안정되고,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송광사 친견후 조계총림 송광사방장 승찬스님은 본지 창간 1주년기념 ‘조계종 4대 총림 방장스님 친견법회’에 동참한 1백여 불자들에게 5계를 지키는 것

이 불자의 근본이라는 법어를 내렸다.

승찬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이 가득 담긴 팔만대장경을 간추리려면 계·정·혜 세가지”라고 강조하고 부처님과의 인연을 굳게 맺어주고 이어주는 것은 5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승찬스님의 법문을 들은 참석자들은 “매일 머리를 숙이면 서도 소홀히 한 불자의 길이 다시 금 일깨워졌다”며 고마워했다.

5·18특별법 대선자금공개 촉구

실천승가회등 4개 종교단체 23일 기자회견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통의장 청화·지선)를 비롯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4개 교단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5·18 특별법제정과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4개교단은 “12·12군사 반란에 면죄부를 준 현 정부가 이번 비자금 사건마저 비호한다면 물이 될 수 없는 국민적 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김영삼대통령도 92 대선비자금을 명백히 밝히고 국민앞에 참회하라”고 천명했다.

전국 교무국장 연수회가 12월 1·2일 양일간 속초 산중사에서 개최된다.

첫날인 1일에는 최충욱교수의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향적 교육부장 스님의 ‘95년도 연수의 의의와 평가 및 96년 연수에 대하여’ 강의와 내년 연수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게된다.

2일에는 교육원장 윤선스님의 내년도 교육원 사업 전반에

대한 특강이 실시된다.

‘청소년문제’ 세미나

불교사상연, 내달 3일

불교사상연구원(원장 황성기)은 오는 12월3일 오전10시 수원 대승원에서 ‘청소년문제와 불교계의 과제’ 세미나를 열고 ‘불교청년들의 해’를 총보한다.

현직 교법사를 중심으로 발

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수산스님(대승원 주지)의 기초연설과 유인보 교법사(동대부총), 박영동 교법사(동대부고), 김영민 자원봉사회장, 이학송 교법사(광동여고)의 논문 4편이 발표된다.

서운스님 다비식
원로회의장 염수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이목당 서운(二木 瑞雲)대종사(전 등사 조실)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지난 19일 황악산 직지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원로회 의장 해암스님, 종회의장 실경스님, 총무원장 원주스님등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영결식은 명종을 시작으로 영결법요, 행상소개, 육신법요, 영결사, 종정스님 법어(성수스님 대독), 조사,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중앙신도회장에 정치인 고려 안해”

월주총무원장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새로 결성될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자리에 대해 정치인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월주총무원장 밝혀

월주스님은 지난 23일 총무원장 취임 1주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앙신도회장은 신실있고 능력있으며 청렴한 불자로서 기업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서운스님 영결식과 다비식이 지난 19일 직지사에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사부대중 3천여명이 동참했다.

자원봉사지원법 무산 위기

정기국회서 심의 보류

자원봉사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해 제정기로 했던 ‘공익자원봉사 지원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새불교 전국승가회

내달 1일 창립법회

1년전부터 준비해온 이 법안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시의 자원봉사활동등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자체가 보류된 것.

이에따라 조만간 법안소위가 재구성되지 못할 경우 동 법안은 국회통과가 무산될 결국 자포자기될 것으로 보인다.

“새 불교운동 전국승가회”는 앞으로 △소모임 활성화 △연구·조사사업 △정기 학술·수련행사 △차료비간 △대의 연대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펼칠 예정이다.

울산 경불련 내달 1일 창립

지역단위론 최초

울산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준비위원장 유관희, 이하 경불련)이 창립된다.

만인공존, 만물공생, 민족정기확립과 보살행을 실천해나오도록 하는 울산 경불련은 12월1일 오후7시 울산 남구 소재 정토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공식출발한다.

창립에 앞서 유관희창립준비위원장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울산 경불련은 앞으로 모든 사회문제를 보살사상

을 바탕으로 불교토 건설과 사회정의 실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국무적사 위문법회
경남향승단 해인사지단

경남향승단 해인사지단(지단장 분각스님)은 지난 19일 20일 양일간 전방부대 호국 무적사에서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축하기를 앞두고 전방의 장병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마음을 전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위문법회에는 향승단소속 스님 30여명이 동참했다.

향승단은 내무반을 개조해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국무적사에서 법회를 갖고 법당창건 불사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법원조정안에 이의신청 제기

범어사·경동건설 ‘아파트문제’ 해결 난망

범어사 앞 경동아파트 건립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범어사(주지 정관)와 경동건설(대표 김재진) 양측이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강제조정안에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18일 부산지법 동부지

원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달 31일 ‘설계고도 1백98m를 초과하는 건축의 불가’와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사적인 실행행위 금지’를 경동건설과 범어사 양측에 각각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동대부고·조계사 결연

동대부고등학교(교장 김정환)는 오는 30일 조계사와 지매결연을 맺는다.

동대부고는 이번 지매결연을 계기로 다양한 실행활동을 전개, 학원 포교의 방법과 방향을 재진단한다.